월요광장

※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.



심옥숙 인문지행 대표

4월이다. 새순이 돋고 꽃들이 다투어 피는 계절이다. 얼어붙은 땅속에서 뿌리 를 품고 있다가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생명을 밀어 올리는 자연의 기억력이 경 이롭다. 그런데 봄 잔치가 화사할수록 마음 한쪽이 무거워진다. 이 때쯤이면 새순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기억들 때문이다.

4월과 함께 돌아오는 기억들로는 가깝 게는 4.16 세월호 참사, 조금 더 거슬러 올 라가면 제주 4.3 항쟁의 진실 등이 있다. 여전히 그날의 일은 부분과 파편들의 이 야기가 되어서 떠돌며 많은 것들이 어둠 속에 남겨져 있으니…. 이제는 닳고 낡아 서 식상할 대로 식상한 '4월은 잔인한 달' 이라는 어느 시인의 말이 기어이 떠오르 고 만다.

시인이 자연의 잔인함을 말하는 것이라 면, 잔인한 기억으로 얼룩진 4월은 사람으 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. 잔인한 기억이란 누군가 잔인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기에 생기는 것이다. 이 잔 인함의 바닥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? 이 잔인함의 원인은 무엇일까?

4월, 인간의 오만을 생각한다

그리스 3대 비극 작가에 속하는 소포클 레스 (BC 497~406)는 "오만은 폭군을 낳는다"라는 유명한 말을 그의 작품 '오 이디푸스 왕'에 썼다. 인간의 오만을 그리 스어로 히브리스 (Hybris)라고 한다. 자 신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분수를 넘어서 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행동으로 나타 나는 것이 오만의 흔한 모습이다. 그리스 인들이 가장 경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만으로, 얼마나 위험한 것으로 생각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신화다. 뛰어난 영웅마저도 신의 분노를 사서 멸망의 길 을 가는 대부분의 경우가 오만함 때문이 다. 제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오만이라는 병에 한번 걸리면 결국 비참하게 몰락하 고 만다. 잘 알려진 '오만한 인간'의 이야 기가 오이디푸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'오 이디푸스 왕'이다.

오이디푸스는 '아버지를 죽이고 어머 니와 결혼할 운명'을 타고났다는 예언 때 문에 아주 어려서 버려졌고 다른 사람의 손에서 성장하는데 결국 이 무시무시한 예언에 대해서 알게 된다. 그리고 두려움 에 떨며 그 예언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 다.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어느 날 한 노인 과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자 불같은 성질 을 못 참고 노인을 죽이고 만다. 그 노인 은 사실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친아버지 였고 결국 친아버지를 죽일 것이라는 예 언이 이루어진 것이다. 오이디푸스는 왕 이 되어서 어머니와 결혼한다.

그러나 오이디푸스는 결국 이 비참한 사실을 알게 되고 절망한다. 그는 "내가 눈을 뜨고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소?" 라 고 절규하며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찔러 장 님이 된다. 멀쩡한 두 눈을 두고도 오만에 휘둘려서 장님으로 살았으니 두 눈을 뜨 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절절한 깨달음이 었던가! 오이디푸스는 "두 발로도 걷고 네 발로도 걸으며 또한 세 발로도 걷는 것 이 무엇인가?"하는 문제로 사람들을 괴 롭히던 스핑크스를 굴복시킨 영웅이다. 그럼에도 정작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오만의 유혹은 이겨 내지 못한 것이다.

권력자로서 오이디푸스 왕 못지않게 오 만의 극치를 보여 준 사람이 그리스와 전 쟁을 벌인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다. 그는 그리스 본토를 쳐들어갈 때 큰 풍 랑이 일자 분노해서 그리스 해협에 죄를 묻고 채찍 300대를 치게 했다. 또 바다의 신을 결박하는 뜻으로 바다에 족쇄를 던졌 다. 하지만 그는 그리스 군에게 패하고 자 신의 부하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자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울부짖는다.

고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영웅과 통치 자들의 치명적 결함이 오만이다. 뛰어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능력의 부 족이 아니고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것이 라는 의미다. 오만에 휘둘려서 눈이 멀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응징을 당한다. 그래서 오만에 대한 응징을 그리스 사람 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'응징의 신'을 섬

오만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우월 하다는 자만심과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 망에서 시작한다. 이런 의미에서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 는 행위가 바로 오만이다. 페르시아의 왕 은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전 쟁을 마치 놀이처럼 생각했고, 오이디푸 스는 자신의 현명함과 탁월함을 과대하 게 믿었기에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였다.

그렇다고 오만으로 몰락하는 사람이 소위 '잘나가는' 사람만은 아니다. 누구 나 쉽게 오만의 유혹에 빠진다. 작은 성공 이나 운 좋게 얻은 우연한 성공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기란 얼마나 쉬운가. 기 대가 컸던 몇 사람들이 최근에 보여 준 충 격적인 행태 또한 그들이 빠져 있는 오만 의 깊이를 보여 준다. 그들은 오만과 함께 오는 것이 '응징의 신'이라는 것을 정녕 몰랐던 것인가.

하지만 무엇보다도 절망적이고 불행한 오만은 권력을 휘두르는 오만이다. 1949 년 토벌대가 쏜 총에 맞아 평생 부서진 턱 을 무명천으로 감싸고 살다가 돌아가신 제주의 '무명천' 할머니에게 한 나라의 국 민이란 무슨 의미일까? 외출이라고는 병 원 가는 일 외는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 었던 이 할머니에게 세상이란 무엇이었 을까? 감히 그 답이 무엇일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. 다만 고전에서 찾은 오만한 자에 대한 답을 마음에 깊이 새겨 담는다. "그대가 그대의 재앙이다."

社 說

전남 도지사 선거 다시 3파전으로 진행되나

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최고위원회 를 열고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지방선거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 로 했다. 최고위는 또한 일부 최고위원 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남 지사 출마를 선언한 장만채 전 전남 교 육감의 입당을 승인했다.

임 구청장에 대한 후보 자격 박탈은 당연해 보인다. 앞서 광주시당 공직선 거후보자 검증위가 '부격적 예외'로 인 정해 줄 것을 당에 요청했으나 '2013년 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엄 연한 사실'이 있기 때문이다.

하지만 최고위가 장 전 교육감의 공 천 신청 시 해당(害黨) 행위와 관련한 별도의 서약서를 제출받기로 하는 선 에서 입당을 허용한 것은 논란이 되고 있다. 물론 민주당이 조건부로 입당을 승인한 것은 그의 입당에 대한 당내 반 대 여론을 고려한 조치였을 것이다.

장 전 교육감은 지난해 5·9 대선 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지원했다 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내에서는 그 의 입당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 지 않게 나왔었다. 그러나 추미애 대표 는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 전 교육 감의 입당을 의결했다. 정가에서는 추 대표가 그의 입당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에 대해 뭔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설왕설래하고 있다. 이날 안 규백 최고위원은 "납득하기 어렵다"며 강하게 항의한 뒤 퇴장했다고 한다.

적폐 청산에 역점을 두고 있는 민주 당이 굳이 하자가 있어 보이는 후보를 받아들인 이유를 아직은 짐작하기 어렵 다. 하지만 한 최고위원의 말처럼 공당 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.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저버리고 오락가락하다 보면 국민의 신뢰도 표도 다 잃을 수 있 기 때문이다. 어찌 됐든 민주당이 그의 입당을 허용하면서 전남 지사 후보 경 선은 김영록(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)ㆍ 신정훈(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)과 더 불어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극적 반전 금호타이어 회생의 길 찾았지만

벼랑 끝에 몰렸던 금호타이어가 극 적으로 회생의 길을 찾았다. 채권단과 노조가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과 경 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막판 합의를 이 뤄 낸 것이다.

금호타이어 노조는 어제 광주공장에 서 '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 특별합 의'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, 투표에 참여한 2741명 가운데 1660명(60.6%)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. 이에 앞서 지난 30일 오후 최종 구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 장, 윤장현 광주시장 등 정부와 채권 단, 광주시 관계자 9명은 노조와 5시간 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더블스타의 자본 유치 및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.

금호타이어 노조가 기존 입장을 바 꾼 데는 법정 관리로 인한 대규모 구조 조정에 대한 우려가 큰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. 특히 청와대가 "정치 논 리로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"고 압 박에 나선 게 결정타가 됐다. 윤장현 시 장도 고비마다 진정성 있는 중재로 사 태 해결에 기여했다.

이로써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의 자율 협약 연장과 긴급 자금 수혈, 더블스타 의 유상 증자 등을 통해 8000억 원 이 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경영 정상 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. 지역민의 입 장에선 향토 기업이 외국 기업에 넘어 가게 됐다는 아쉬움도 있지만, 대량 실 직과 지역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 는 파국을 막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
하지만 쌍용차·GM 사태를 지켜본 업계와 직원들 사이에선 '먹튀'에 대 한 우려도 여전하다. 금호타이어 인수 로 기술력을 키운 더블스타가 고용 보 장 기간이 지난 뒤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인수 자금을 회수하고 국내 공장을 폐쇄할 가능성도 없지 않 기 때문이다.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향 후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고,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

기 고

악어와 악어새



최종욱 수의사·우치공원 동물진료 담당

한 시사프로그램을 우연히 보다가 정 치권과 언론의 부적절한 공생 관계를 빗 대어 '악어와 악어새' 같은 거라고 진행자 가 짧게 말하는 걸 들었다.

그 순간 별로 대수롭지 않을지도 모를 이 표현이 내겐 매우 언짢게 들려왔다.

왜 하필 악어와 악어새 같이 좋은 관계 를 인간 사회의 못된 관계에 연관시키는 지 이해하기 힘들어서다.

원래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는, 스스로 이빨을 관리하기 힘든 아프리카 거대악어 의 이빨 사이에 낀 음식 찌꺼기를 작은 물 떼새들이 간혹 청소해 주어 건강 관리를

해주고, 물떼새는 악어로부터 일정한 먹을 거리를 보장받는 매우 조화로운 관계이다. 그 관계는 그 한마디 말처럼 단순한 것

이 아니라 오랜 진화의 산물이며 운명적 인 관계를 뜻한다.

이런 걸 서로 이득을 주고받는 '상리공 생'이라 한다. 이런 공생 관계는 초식동물 과 그들 반추위내의 세균들, 개미와 진딧 물 등등 동물계의 생태 그물 안에서 얼마 든지 찾아볼 수 있다.

그러나 인간관계 특히 정치적인 이해 관계는 이합집산, 권모술수, 토사구팽 등 날 선 사자성어로 표현되듯 차마 입으로 담기 힘든 모략과 배신들이 성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해 의해 만들어지고 사라 지는 부적절한 관계들이 많다. 이런 걸 악 어와 악어새의 좋은 관계에 비유함은 전 혀 온당치 않다.

이 밖에도 흔히 우리가 동물에 빗대어 쓰는 속어들 중에는 동물들이 알고 들으 면 억울할 것들이 한 둘이 아님을 동물들 과 밀접하게 지내온 이들은 자주 느끼게 된다.

특히 인간에게 지극히 충성스럽고 심 지어 자기 몸까지 내주는 개와 돼지, 소와 닭에 관련된 말들이 많은 부분 수위를 차 지하고 있으며, 그 대다수가 동물들을 비 하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최대의 모욕을 느끼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.

그 대표적인 말로 '개새끼'라는 말, 그런 데 '강아지'라 부르면 귀여움을 나타내는 극찬인데 비해 같은 의미임에도 '개새끼' 는 최대의 모욕을 주는 욕이 된다. 또한, 비슷한 표현으로 '망아지'도 욕이 된다.

'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 다.'란 것도 가끔 비밀을 유지해야 할 때 요긴하게 쓰이긴 하지만 실은 쥐나 새들 은 일정거리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다 가오는 사람들의 동태에 주목하는 거지 말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.

동물 똥에 빗댄 욕도 많이 있지만, 개똥 은 오랫동안 열을 내리는 약으로도 쓰여 왔고 돼지나 소똥은 비싼 퇴비 혹은 건축 재료로도 쓰인다.

사실 인간이 발명한 것들 대부분이 동 물들에게서 배워 온 것이다. 비행기나 잠 수함을 매나 돌고래를 보지 않았다면 과 연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?

돌고래나 박쥐의 초음파 역시 널리 인 간 세계에 활용되고 있다. 인간을 인간답 게 하는 사회 규범조차 늑대들에게서 배 워왔다는 설이 있다.

사람들에게 동물적인 감각을 가졌다고 하면 극 칭찬이 된다.

그러나 무슨 동물 같다고 하면 욕이 된 다.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일까? 아마도 동물 세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는 것일 것이다.

동물들이 일부 감각이 뛰어남은 인정 하겠지만 그 밖의 것은 무조건 인간보다 비루하다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다.

그러나 동물들을 하나씩 더 알아갈수 록 예전에 분명 욕이었던 것이 칭찬으로 뒤바뀌기도 한다.

한때 요물로까지 불렸던 고양이는 도 도함과 귀여움의 상징처럼 되었고, 우보 행(소걸음)하면 얼마 전까지 느림과 게으 름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여유와 낭만 으로 통한다.

기 고

농업에서 대안을 찾자



유 재 현 농협 농신보 순천권역센터 지점장

부지런한 계절은 어느새 혹한의 계절 을 지나 우리 곁에 연분홍 매화와 따스 한 봄바람을 보내고 있다. 저 들녘의 아 낙네들의 옷차림에서 봄이 살아나고 있 다. 계절은 이렇게 자연의 섭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찾아오지만, 우리네 삶은 여 전히 혹한의 계절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 이 든다.

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'2017년 출 산율과 사망률 자료'에 따르면 한국은 세 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율을 기록했다고 한다. OECD 평균 출산율은 1.68명, 이웃 나라 일본은 1.46명인 것에 비해 한국은 1.05명에 불과하다.

또 저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청년 실업 도 9.8%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. 천정 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교통 체증을 비롯한 제반의 문제점 들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.

산업화는 개발과 성장을 모토로 지역 분권화 대신 중앙 집중화, 합리성 대신 효 율성, 공동체의 연대 대신 개인주의, 다양 성 대신 획일성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

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편리함과 신속 함을 얻었지만, 그 이면에는 사회적 빈곤 과 심리적 불안감, 문화적 상실 등을 겪으 며 삶의 행복은 점차 잃어가고 있다. 그 과정을 몸으로 겪으면서 편리함보다는 삶의 질, 즉 행복지수의 중요성을 새삼 깨 닫게 됐다.

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연대(SDSN) 는 매년 세계의 15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평가하고 있다. 평가 항목은 GDP, 건강 수명, 관용, 정부와 기업의 신 뢰지수등7가지다.

지난해 평가 결과를 보면 노르웨이, 덴 마크, 아이슬랜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 위권에 있었다. 또 일본이 51위,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56위를 차지했다. 경제 규 모가 일본은 3위, 한국이 12위인 점을 감 안하면 행복지수는 많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.

이제는 사회의 안녕과 가치 척도의 기 준을 GNP(국민총생산) 보다는 GNH(국 민총행복)로 삼아야한다는 강한 필요성 을 느낀다. 우리 사회가 산업화의 성과인 편리함과 신속함에 익숙해지는 동안 간 과하고 있던 역기능에 대해 모두가 자각 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.

나는 이 대안으로 농업과 농촌이 가지 고 있는 가치들을 제시하고 싶다. 농업은 농산물 생산의 본원적 기능과 함께 식량 안보, 농촌 경관 및 환경 보전, 수자원 확 보, 홍수 방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.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계승이 라는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 업화 사회가 주는 경쟁, 긴장, 속도감의

피로에 지친 현대인에게 관광, 쾌적한 휴 식, 체험을 제공해준다. 요즘처럼 환경 오 염 등으로 먹거리가 불안한 시대에 국내 토산 식품의 안전한 공급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는 생각도 한다.

우리 농업과 농촌은 발전과 성장으로 상징되는 산업화 시대에 인적 자원과 먹 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소외와 홀대를 받았다. 지금 우리 농업은 외적으로는 FTA라는 농업 강대국들과의 경쟁의 파고를 넘어 야한다.

내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, 소비 위축, 만연한 가축 질병 등 농업이 안고 있는 내 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화의 문제 점까지도 포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 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시기가 오고

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업화의 편리함과 신속 함이 자연 생태계와 공존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. 그리고 우리 농업은 '여백이 있는 삶'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.

無等鼓

개

김훈의 소설 '개'는 두 발바닥과 몸 뚱이로 세상 속을 뒹구는 진돗개 '보 리'에 관한 이야기다. 보리의 눈에 비친 인간사는 부조리 그 자체다. 끝도 없는 탐욕과 집착, 의미 없이 뱉어 내는 말 들은 인간이 지닌 일반적인 특성이다.

"개 노릇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 아. 여기까지는 기초에 불과해. 더 중요 한 공부는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정 확히 알아차리고 무엇이 사람들을 기 쁘게 하고 무엇이 사람들을 괴롭히는

지를 재빨리 알아차 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야." 이처럼 개가 '개 노릇'을 설명하는

부분은 씁쓸하면서도 흥미롭다.

올해가 무술년(戊戌年) 개의 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.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동물로 개를 따라올 짐승은 없다. 설화에 등장하는 '의견'(義犬)은 명민함 과 용맹을 상징한다. 그러나 충복의 표 상과 달리, 더러 개는 비천과 험구(욕)로 대상화되기도 한다. 개무시, 개나발, 개 ×× 등이 그 예인데, 이 중에서도 '미친 개'라는 말은 가장 모욕적인 표현이다.

최근 자유한국당 의원의 '미친개' 발 언이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다. 장제 원 대변인은 경찰의 울산 시청 압수 수색 에 대해 "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렸다.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"라 고 거칠게 말했다. 그러나 말에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 명제를 떠올리지 않아도 '미친개' 발언은 그 정도를 넘어섰다. 장 대변인은 MB 구속영장이 집행되던 밤 "눈물이 자꾸 흐릅니다. 지금 이 순간 결 코 잊지 않겠습니다"라고 밝힐 만큼 여 린(?) 감성의 소유자가 아니던가.

다시 김훈의 소설 '개'를 이야기하자 면, 작품에는 곳곳에 인간을 부러워하는

견공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. "내가 사람의 아 름다움에 홀려 있을 때 도 사람들은 자기네들

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고 있었다." 아마도 개의 눈에 비친 사람의 아름다움 은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에 있 지 않았을까. 개가 뒷다리로 서서 교실 안 을 들여다볼 정도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은 말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을 것이다.

인간을 가리켜 '호모 로쿠엔스'(말하 는 인간)라고 한다. 언어는 인간의 본 질이며, 그것의 구현은 입에 의해서다. '미친개' 발언에 앞서, 입은 재앙을 부 르는 문이라는 뜻의 '구시화지문'(口是 禍之門)을 떠올렸더라면….

/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@

光则日朝

The Kwangju Ilbo

사장·발행·편집·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(일간) 우)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

대표전화 222-8111·220-0551〈지사·지국(구독신청·배달안내)〉 **광고문의 062-227-9600** 경영지원국 220-0515 문화사업국 220-0541 제 부 220-0663 ⟨FAX 222-8005⟩

편집국안나 〈대표 FAX 222-4918〉 (FAX 222-4938) 편 집 부 220-0649 문 화 부 220-0661 정 치 부 220-0632 문화미디어부220-0664 사 회 부 220-0642 체 육 부 220-0697 사 회 2부 220-0652 사 진 부 220-0693

⟨FAX 222-0195⟩ 기획관리국 227-9600 업 무 국 220-0551 ⟨FAX 222-0195⟩ ⟨FAX 227-9500⟩ 디 자 인 실 220-0536 서 울 지 사 02-773-9331 (FAX 02-773-9335)

※구독료 월정 10,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

독자투고·기고 환영합니다

독자투고·기고를 기다립니다.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, 생활의 경험,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.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, 주소, 전화번호를 함께 적 어 주십시오.

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-2200-654/팩스 062-222-4918/e메일 opinion@kwangju.co.kr